

미리 그려보는 21세기 출판의 지형도

출판의 미래는 고급 콘텐츠 개발에 달려...
매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21세기 출판은 종이책과 전자책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전자책 개발에 뛰어들었다. 인쇄영역에서는 주문출판이 선 보이고 있다. 출판환경이 급속도로 재편됨에 따라 유통·제작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종이책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과 비관이 공존한다. 하지만, 디지털매체의 도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생산·가공하느냐에 따라 출판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과피루스의 시대는 종언을 고할 것인가?’

새천년, 책의 미래를 점쳐볼 때 떠오르는 의문이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 이래 종이책은 철옹성의 권좌를 누려왔다. 하지만 이미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종이책의 죽음을 알리는 조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매체가 종이책의 아성에 강력하게 도전한 것이다. 미래 출판의 지형도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다시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고화상·편의성 갖춘 전자책 개발 활발

2천년대 출판계는 종이책과 전자책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종이책의 권좌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도전자는 ‘전자책’(E-Book)이다. 전자책이란 디지털 파일로 저장된 책의 내용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책. 전용 하드웨어인 ‘이북리더’(E-bookreader)의 내장 모뎀으로 전자서점이나 전자도서관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책을 전송받아 읽을 수 있다.

전자책은 종이책의 아날로그적 특성을 수용하면서 디지털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LCD액정화면에 불이 들어와 조명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넘김’ 버튼으로 책장을 넘기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내장된 사전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다. 서체 크기도 조절되며 간단한 메모기능과 인쇄기능까지 갖췄다. 배터리는 한번 충전하면 약 20시간 정도 쓸 수 있다. 최고 50만 페이지까지 저장 가능하며 책 1권을 내려받는 데 보통 2내지 5분이 걸린다. 비용은 현재 18~25달러 수준.

국내에서 주문출판을 시작한 ‘타라’의 디지털 인쇄기. 디지털데이터를 인쇄기로 보내면 분당 135매를 양면으로 인쇄한다.



전자책 개발에는 미국이 앞서 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인 뉴보미디어가 지난해 말 소설책 10권 분량인 4천쪽을 담을 수 있는 ‘로켓e북’을 개발, 현재 반즈앤노블에서 판매 중이다. 판매가는 출시당시의 499달러에서 199달러로 하락했다. 그밖에 ‘소프트북’ ‘밀레니엄 리더’ ‘에브리북’ 등 10여개의 전자책이 시장에 나와 있다.

일본도 전자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0개의 출판사와 정보통신업체가 지난해 1백억엔 규모의 ‘전자서적 컨소시엄’을 구성, 문고판 크기의 전자책을 올해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화된 서적을 인공위성을 통해 서점이 나 편의점으로 전송하는 전자서적 배선 시스템을 오는 3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전자파일을 내려받는 고밀도미니디스크(MD) 한장에는 문고판 20권 분량이 저장된다.

국내에서도 전자책 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천대 벤처창업연구회에서 개발중인 ‘마이크로북’(가칭)은 세계 각국 언어로 처리된 책과 스캐너로 입력된 그래픽 데이터를 읽을 수 있으며 전자수첩과 책읽기 기능도 갖출 예정이다. 한편, 정부도 발벗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2월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 디지털 서적과 간행물 웹컨텐츠를 매년 1백개씩 선정,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전자책의 한계로 지적돼온 모니터의 해상도 문제도 곧 해결될 전망이다. MS사는 ‘98킴텍스’에서 현재 모니터 화면의 글씨보다 3배 이상 선명한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클리어타입’(Clear Type)을 발표했다. IBM도 올해 ‘윈트겐 디스플레이’를 선보일 예정인데, 종이 위에 인쇄된 글씨를 능



가할 정도로 탁월한 해상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인쇄된 출판물과 똑같은 편집내용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PDF(Portable Document Format) 방식도 확산되고 있다. 닷넷소프트가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는 윈도·맥킨토시·유닉스 등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문서의 내용을 보고 읽을 수 있다. 출력품질이 우수하고 검색기능도 갖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학습지·주보·보고서·카달로그·명함 등을 PDF포맷으로 바꿔 인터넷을 통해 배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전자책에 담길 콘텐츠 저장작업도 활발하다. 현재 콘텐츠를 생산하는 전자책 출판사는 '랜덤하우스' 'E-book 익스체인지' 'E-book 센트럴' 등 전세계적으로 1백개가 넘는다. 그밖에 저작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세계의 유명 문학작품을 인터넷에 올려놓은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와 국내의 '직지심경 프로젝트'도 전자책 상용화를 위한 터잡기 공사의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전자책이 일반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계원조형예술대 이기성 교수는 "10년 전만 해도 미래 출판에서 종이책과 비종이책의 비율을 50:50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25:75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계·법전처럼 정보내용이 변하거나 신문처럼 속보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종이책이 전자책으로 대체되리라는 것이다.

비종이책의 영도확장과 함께 종이책의 제작·유통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인스턴트 출판'으로 불리는 '주문출판'(Print on Demand,

혹은 Book on Demand)이 그것으로, 서점에서 책을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책을 제작·판매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서점 체인업체인 보더스사는 올해부터 각 지역 서점에 POD유통센터를 설치, 절판된 책이나 서점에 진열되지 않는 책을 주문받아 15분만에 페이퍼백으로 만들어 판매한다.

유통·인쇄혁명 예고한 주문출판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문을 연 '타라'(TARA, 대표 강영중)가 주문출판 방식을 선보였다. 일본 제록스사의 '도큐테크(Docutech)135'와 '도큐칼라(Docucolor)4040'을 도입, 디지털 데이터를 인쇄기로 보내면 분당 135매를 양면으로 인쇄한다. 600dpi의 해상도로 최대 A3용지까지 자동인쇄와 자동제본이 가능하다. 주로 교육용 교재·논문·회의록 등 소규모 물량을 주문받아 인쇄한다.

주문출판은 아직 초기단계다. 해상도가 읍셋 인쇄에 미치지 못하며 제본도 '감싸기 제본' 방식에 머문다. 타라의 박향귀 전자출판 팀장은 "앞으로 기술적 문제만 극복된다면, 주문출판은 미래형 출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인쇄공정을 대폭 생략하고 무재고 출판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평화당인쇄의 최영일 차장은 "주문출판은 전통적인 인쇄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지 정보만 담는 책에 한정될 것"으로 본다.

인터넷 서점도 종이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험대다. 교보·종로·영풍 등 대형서점의 인터넷 서점과 알라딘·YES24·DC50 등 10개 업체의 99년 신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교보북클럽의 경우 매출액이 98년에 비해 세배로 뛰었다. YES24는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방문객 수 1백만명을 돌파했고 알라딘도 개점 6개월 만인 지난 11월 총매출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

외형적 신장세만 봤을 때 인터넷 서점은 유통혁명이라 일컬을 만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 알라딘의 조유식 대표는 "대차대조표상의 수치만으로 인터넷 서점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한다. 국내 시장규모상 중소 인터넷 서점간의 컨소시엄이 만들어질 가

능성도 높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콘텐츠 개발만이 미래 출판의 희망

종이책의 미래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 낙관과 비관이 엇갈린다. 한울의 김종수 대표는 "머잖은 미래에 종이책은 전자책으로 대체될 것이다. 종이는 수급불균형과 환경과파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기술발전 속도로 봤을 때 전자책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편의성, 에너지원, 해상도 등의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낙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디지털화가 진전될수록 아날로그책의 장점이 더욱 돋보일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인간의 욕망구조와 신체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종이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아날로그 책에 이미지적 요소를 적극 도입하면 종이책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종이책의 소멸논의 자체는 의미가 없다. 하나의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다. 출판계가 매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정보통신업계의 하청업체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구대 출판학과 이용준 교수의 예측이다.

미래출판의 관건은 결국 누가 부가가치 높은 콘텐츠를 개발·가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한다. 매체환경이 급속도로 변한다 할지라도 고도의 정제된 콘텐츠 개발에는 출판분야가 비교우위에 서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매체의 도전은 출판계에 위기자 기회인 셈이다. - 박전홍 기자